


# 이 력 서

|  |      |                                   |         |                     |   |
|--|------|-----------------------------------|---------|---------------------|---|
|  | 성 명  | 김유림                               | 영문      | Yu Lim Kim          |   |
|  |      |                                   | 한자      | 金有林                 |   |
|  | 생년월일 | 2001. 04. 18                      | E- mail | unsol4108@naver.com |   |
|  | 현주소  | 서울 서대문구 현저동 독립문 파크빌 아파트 103동 902호 |         |                     |   |
|  | 전화번호 | 주택                                | -       | 휴대폰                 | - |

|                  |                |                     |
|------------------|----------------|---------------------|
| 학<br>력<br>사<br>항 | 졸업년월           | 출신교 및 졸업여부          |
|                  | 2020.02.17     | 배화여자 고등학교 졸업        |
|                  | 2020. 03. 01 ~ | 동양미래대(컴퓨터정보공학과) 재학중 |
|                  |                |                     |
|                  |                |                     |

|                  |              |            |         |
|------------------|--------------|------------|---------|
| 자<br>격<br>사<br>항 | 취 득 년 월 일    | 자격,면허명     | 시행처     |
|                  | 2021. 07. 25 | 컴퓨터활용능력 1급 | 대한상공회의소 |
|                  | 2021. 08. 17 | 2종 보통      | 서울지방경찰청 |
|                  |              |            |         |

|                  |    |     |     |     |     |      |
|------------------|----|-----|-----|-----|-----|------|
| 가<br>족<br>사<br>항 | 관계 | 성명  | 연령  | 학력  | 근무처 | 동거여부 |
|                  | 부  | 김효식 | 59세 | 대학원 | 회사원 | 유    |
|                  | 모  | 김성숙 | 54세 | 대학원 | 회사원 | 유    |
|                  | 형  | 김민성 | 24세 | 대재  | 회사원 | 무    |
|                  |    |     |     |     |     |      |
|                  |    |     |     |     |     |      |

위 내용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2. 09. 20. (인)

## 유년시절을 비롯한 성장과정에 대하여 기술하십시오

저는 학창시절 학급 임원을 도맡아 했고, 어떤 일에도 책임자가 되려 노력했습니다. 맡은 일은 누구에게도 부끄럽지 않도록 완벽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나서는 것을 좋아하고 최고가 되려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학창시절 유난히 소심한 성격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신기하게도 앞에서 말할 때마다, 손이 덜덜 떨렸고,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하지만 수십 번, 수백 번 떨며 이겨내려 노력했습니다. 작은 발표부터 큰 프로젝트 발표까지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소심했던 성격은 꼼꼼하고 섬세한 성격으로 발전했고, 떨리고 작았던 목소리는 또렷한 목소리가 되었습니다. 작은 도전들은 결코 작은 결과를 만들지 않는다는 것을 몸소 느꼈습니다. 대학교를 다니면서 중간만 가는 것이 아닌 목표를 세워 이겨내며 여러 표창을 받았고, 휴학생 뎀 마라톤에도 도전했으며, 2학년 때는 'ONE'이라는 전공 동아리에서 Front-B팀의 담당자로서 참여했습니다. 지금까지 도전을 통해 성장했기에 앞으로의 많은 도전들이 기업과 함께하며 성장하고 싶습니다.

## 본인만의 경쟁력은 무엇이며, 그를 위해 어떤 준비를 해왔는지 서술하십시오

제 가장 큰 장점은 맡은 일을 제 일처럼 완벽하게 수행하려는 주인의식입니다. 주인의식에서 나오는 책임감은 많은 영향을 불러일으킵니다. 자신에게는 성실함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동기를 부여하며 열정을 끌어냅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부끄러운 것이라 여겼습니다. 부끄러운 것을 끔찍이 싫어했기에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꼼꼼하게 과제를 마무리했습니다. 특히 팀 프로젝트에 있어 맡은 일은 자기 일처럼 혹은 그 이상으로 완벽을 추구했습니다. 카페에서 2년 이상 아르바이트를 할 때도 단골손님들이 사장으로 착각할 정도로 모든 일을 맡아서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제 열정은 고객에게 기쁨과 신뢰를 주기도 했고, 같이 일하는 직원들에겐 더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의지를 줬습니다. 항상 팀 프로젝트나 같이 일하면서 주인의식을 통해 긍정적인 에너지를 만들었고, 그 에너지를 통해 시너지를 만들어 최고의 능력과 성과를 만들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책임감으로 만드는 효과를 알면 알수록 저에게 더 든든한 동기부여가 되며 긍정적인 순환을 만들어낸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장점을 통해 이 기업에서도 긍정적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싶습니다.

## 새롭게 도전하여 변화와 혁신을 이뤄낸 경험을 서술하십시오

저는 고등학교 시절 과학을 좋아하지만, 실험에서는 두려움이 많은 학생이었습니다. 항상 실패할까 긴장하며 참여하다 보니 실수가 잦았고 같이 하는 조원들에게 의지하기 일쑤였습니다. 실험시간이 걱정됐고 피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기에 위기를 기회로 삼아보고자 학교 과학부에 용기를 내 지원해보기로 했습니다. 많은 지원자 속에서 면접을 보면서도 확신이 들지 않고 불안했지만, 합격 소식을 전달받고, 조금이지만 안도감과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과학부로서 첫 시간은 설탕과 색소를 이용해 각 용액의 농도를 맞춰 층층이 쌓아가는 실험을 했습니다. 쉬운 실험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실수를 했지만, 학교 수업시간에 실험하는 것보다 부담감과 초조함은 덜했습니다. 시간이 넉넉했기에 실패해도 다시 할 수 있었고, 흥미로운 실험이 많다 보니 실패 속에서도 즐거움과 자신감을 찾아갔습니다. 학교 수업에서의 실험은 어느샌가 제가 주도하고 있었고, 과학부 속에서 서울시 동아리 한마당, 환경올림픽 등 대외활동에 참여해 수상까지 하며 용기 내지 못했으면 만들지 못할 성공적인 변화를 끌어냈습니다. 그 후 대학생이 되어서도 팀 프로젝트 과목에서의 자신감은 강했고 우수한 성적과 이해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 팀워크 또는 협업을 통해 공동의 목표를 달성한 경험에 대해 구체적으로 서술하십시오.(맡은 역할, 업무수행시 발생한 갈등, 배운점 등)

저에겐 팀워크에 대해서 불신이 있었습니다. 팀으로서 프로젝트를 하면 능력에 상관없이 믿고 맡기는 경향이 있기에, 여러 명의 개인이 과제를 하는 것이 언제나 효율이 높다고 믿었습니다. 대학교에서 동아리를 시작하기 전에도 전 최선을 다하겠지만 다들 적당히 할 것이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ONE'이라는 동아리에서 졸업작품을 준비하는 것은 생각 이상으로 어려운 작업이었습니다. 아무 자료도 없는 상태에서 각자 파트를 나누어 담당자는 맡은 일을 해야 했습니다. 저는 Front-B팀의 담당자로서 웹 페이지 권한 모듈제작, 로그인 페이지 제작, 일정 관리 등

을 기획했습니다. 기말고사 기간까지 겹쳐 밤을 새우는 일도 잦았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학우들에게도 어려운 일이었기에 조급한 마음에 마찰도 있었습니다. 자신이 맡은 과제에서는 최선을 다하려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생긴 마찰들이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모두가 이해하고 있었기에 서로에게 힘이 되려 노력했습니다. 혼자 맡았던 일들이 모두의 일이 됐고, 시작하는 시간은 달라도 끝나는 시간은 항상 같아졌습니다. 서로 눈치를 보며 능률이 떨어질 줄 알았지만, 오히려 힘든 학우들을 배려하기 위해 자신이 맡은 일 그 이상을 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여러 명의 개인이 아니라 팀이었기에 개인의 능률 그 이상을 만들어 낼 수 있었고, 계속 에러가 뜨고 오류를 찾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힘들수록 팀워크가 만드는 시너지는 강력했습니다. 팀워크에 대한 제 불신은 팀이기에 믿을 수 있는 믿음이 되었습니다.